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 午 餐 演 說

- 6.15 남북공동선언과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

- 일 시 : 2004. 6. 15(화) 12:00-
- 장 소 : 그랜드 힐튼 호텔

통일부장관  
정 세 현

존경하는 임동원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조직위원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혁 조선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  
여러분,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멀리 해외  
로부터 참석해 주신 여러분 !

오늘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남북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매우 의미있는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된 것을 진심  
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모시고 6.15 공동  
선언 4주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4년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의 최고 당국자가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만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6.15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 대립과 불신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 냉전구조를 종식시키는 단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국제냉전이 끝난 지 10여년 만에 비로소 한반도에서도 세계  
사의 흐름에 발맞추어 냉전종식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발표된 6.15 공동선언은 남북이 손잡고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민족사를 개척해 나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에서는 화해협력이 실천으로 옮겨졌습니다.

50년 넘게 가족을 그리던 이산가족들의 상봉행사가 정례화되고 있으며, 상설면회소 건설도 합의되었습니다.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철조망과 지뢰를 걷어내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동서 두 군데에 '평화회랑'(Peace Corridor)을 개설하였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하나둘씩 마련되어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미 개성과 금강산에서는 민족경제공동체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협력과 지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개최되어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과 군사분계선에서의 선전 중지에 합의하였고, 오늘부터 그 이행에 들어갑니다. 분단 이후 최초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에 힘입어 군사 분야의 협력이 시작되어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과 북은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이후 탈냉전의 한반도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작년 초 취임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참여정부는 6.15 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확고히 했습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이룩한 성과들을 토대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면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꾸준히 이어져 온 남북간 상호 신뢰와 화해협력은 참여정부의 정책 구상을 실현하는 데 토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분야와 인도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증진시키고, 여타 제반 분야의 교류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남북간 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남북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을 완화시켜 한반도에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이 균형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북간 경제협력은 남북이 모두 원했고 지금까지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경제협력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평화증진 조치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는 평화와 번영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으며, 남북간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협력이 평화정착으로 이어지고, 평화정착이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남북 당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목표로 남북간 장성급 군사회담이 첫발을 내디딘 것은 평화정착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남북 군사회담이 서해상과 군사분계선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데 이어 앞으로는 군사교류와 군비통제, 나아가 본격적인 군축까지 추진하여 상호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협력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복잡다난한 국제환경 속에서 상생의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남과 북은 당사자로서 우리의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지혜를 발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만이 남북간 평화와 협력이 깊어지고 한반도와 국제 사회 사이의 평화와 협력이 균형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도 공고한 토대 위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평화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헤쳐 온 길보다 가야할 길이 더 멉니다.

그러나 남과 북은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냉전종식의 세계적 흐름이 있고, 평화와 번영에 대한 민족적 의지가 있으며, 이를 반영한 6.15 공동선언, 남북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 7천만 우리 민족은 한반도 냉전을 종식하고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일구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토론회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의미와 정신을 재조명하고, 새롭게 우리의 각오와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회의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으로 통하는 지름길을 찾아내는 소중한 지혜를 나누고 또 같이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